

##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강병덕 (Byungdeok Kang)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성봉 (Sung-Bong Cho)\*\*\*

정예은 (Ye-Eun Jeong)\*\*\*\*

손해인 (Hae-In Son)\*\*\*\*\*

#### ABSTRACT

The majority of Korean missionaries working abroad are not properly preparing for their life after retirement. Korean churches or organization sending out missionaries often have had limited understanding of and contribution to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ir missionaries, while many of them have been forced to accept that it is their own responsibility to prepare for life after retirement. As a result, many Korean missionaries are found to struggle to manage for living after retirement in pover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percep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readiness for life after retirement among Korean missionaries. To collect data, we examined a total of 408 missionaries through online survey and interviewed 8 missionaries in person. Through analysis, we presented Korean missionaries' financial readines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information such as age, sex, and marital status, and their verbal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readiness and actual struggles living in Korea, as well as possible solu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made a few suggestions for Korean missionaries and churches in Korea to better help and support Korean missionaries to live a more secure and stable life after finishing their service for the kingdom of God.

**Key words:** Korean missionaries, retirement preparation, financial readiness, life after retirement, elderly poverty

\* 2022년 5월 23일 접수, 6월 8일 최종수정, 6월 8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bkang@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scho@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부생,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gowjddpdms@gmail.com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생,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iinnaa@handong.ac.kr

## I. 서론

최근 발표된 한국선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외에서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들은 총 22,259명이고 그 중 60대 이상인 선교사는 전체의 21.82%인 4,858명에 이른다(한국선교연구원, 2021). 해당 조사에 의하면 한인 선교사들 5명 중 1명은 10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기준이 되는 나이(70세)를 넘긴 상황이고, 과반수는 은퇴 후 사역을 중단할 예정이거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근곤(2016)의 경우, 특정 선교회 소속 선교사 3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50~60대이고, 은퇴 후 고국인 한국으로 들어와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사역 중인 5-60대 한인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향후 10년 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유난히 높은 국내 노인 빈곤율이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통계청(2021)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인 빈곤율(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38.9%로 나타났다. 그간의 동향과 비교해 볼 때 2011년 4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40% 미만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노인 열 명 중 네 명이 빈곤하다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의 노인 빈곤율의 높은 수준은 OECD 회원국과들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5%인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그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이혜리, 2022).

은퇴를 앞둔 한인 선교사들 중 다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다. 윤은혜(2019)의 연구에 따르면, (예장합동 소속)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거주할 주택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응답하였고, 김근곤(2016)은 선교사들의 70% 정도가 전반적으로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준비의 최소 기준이기도 한 공적 연금에 가입한 선교사는 절반 정도에 그칠 뿐 아니라 그나마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윤은혜, 2018). 즉, 한인 선교사들의 과반 이상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실질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는 은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한국선교연구원, 2021). 물론 이 같은 인식은 그간 국내의 관습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반응일 뿐, 사역 후 삶에 대한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거나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적절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소수의 중대형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은 은급제나 은퇴기금 등을 통해 소속 선교사의 은퇴를

상대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준비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여전히 훨씬 더 많은 것이 국내 선교사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즉, 파송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처는 소속 교단이나 단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작은 단체의 경우 은퇴 후 생활, 은퇴 준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종합해서 볼 때, 최근의 연구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은퇴 후 국내로 돌아올 한인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고,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해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모습이 많이 부족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은퇴 후 선교사의 생활과 이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수년 내 은퇴를 앞둔 많은 선교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나 선교단체들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 및 문제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한인 선교사들의 은퇴에 관한 관심이나 은퇴 후 삶의 준비에 대한 필요는 주로 뉴스기사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간간히 다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몇몇 수의 연구들 또한 대개 특정 교단 혹은 선교단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해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크고 작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에 소속되어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은퇴 준비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은퇴 후 삶 준비의 실질적 어려움과 한계를 확인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 정도, 그리고 재정 준비가 부족한 선교사를 위한 도움 방법을 탐색하고, 재정 준비와 관련된 주요한 영역들에서 연령, 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인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은퇴 준비와 관련된 현실적 제약 및 어려움의 현황을 확인하여 이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여러 교단과 선교단체, 그리고 한국 교회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 선교사들이 은퇴 전에는 사역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재정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와 그 방향/방법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1. 재정적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0년 83.5세로 빠르게 증가해 왔고(통계청, 2021) 이 같은 지속적인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로 정의하고 2015년부터 노후준비지원법(법률 제 13365호, 2015.06.2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 376호, 2015.12.23. 시행)을 시행하였다(김연화·황종규, 2017).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재정 준비는 전체 성인의 73%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65세 이상의 준비 비율은 45%에 불과하였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준비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성인의 60% 정도가 국민 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을 주요 준비 방법으로 응답하였지만 65세 이상은 50%로 10% 포인트 더 낮았다. 반면, 부동산이나 개인의 예적금에 대한 응답은 65세 이상의 응답 비율이 전체 성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보험연구원, 2015, 재인용).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 삶 영위에 노후준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김효신, 2008 외).

노후준비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계승·김동하, 2017). 충분한 노후준비에 있어 재정적 준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광민주·이희숙(2015)은 경상소득과 금융자산 등과 같은 재정적 요인들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헌을 살펴보면 그동안 재정적 노후준비에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은퇴준비 지수를 기준으로 한 은퇴준비 정도에 대한 연구나 재정적 노후준비의 충분성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 연구 등이 확인된다(백은영·정순희, 2012; 여운경, 2011; 장지영·양세정, 2013). 특히 특정 인구/대상의 재정적 노후준비 현황을 탐색한 연구들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들(김경호, 2013; 김희정, 2016; 민주홍 외, 2017; 박숙정·이영민, 2021; 전인수, 2014 등)이나 여성(심우정 외, 2016; 이호숙, 2020; 홍지현 외, 2020; 손유경·최성문, 2020 등)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특정 인구/대상의 재정적 노후준비 현황 관련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로 재정적 노후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정지영과 양세정(2013)은 30대 이하인 경우 20.4%에 불과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은퇴가 가까운 50대는 48.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연화·황종규(2017)의 연구에서는 노후필요자금의 조달방안에 있어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며 월급과 부동산임대료를 통해 자금조달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노후자금 준비기간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의 경우 10년 이하라는 응답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해당자와 비해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을 비교한 안서연 외(2020)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 해당자 중 50-60대의 생활비 마련방법 1순위는 배우자의 소득이며, 70대와 80세 이상은 정부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노후 비해당자의 경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상황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43.2%가 준비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1순위로 국민연금(56.0%), 2순위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45.6%), 3순위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44.2%)과 부동산 운

용(21.4%)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국내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계수, 조성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80.0%에 달하였으며 주된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45.6%), 예적·금(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특히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노후 시기에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필요한데, 이여봉(2012)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한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여봉, 2012). 베이비부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 준비에 약하며,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손판도·김진곤,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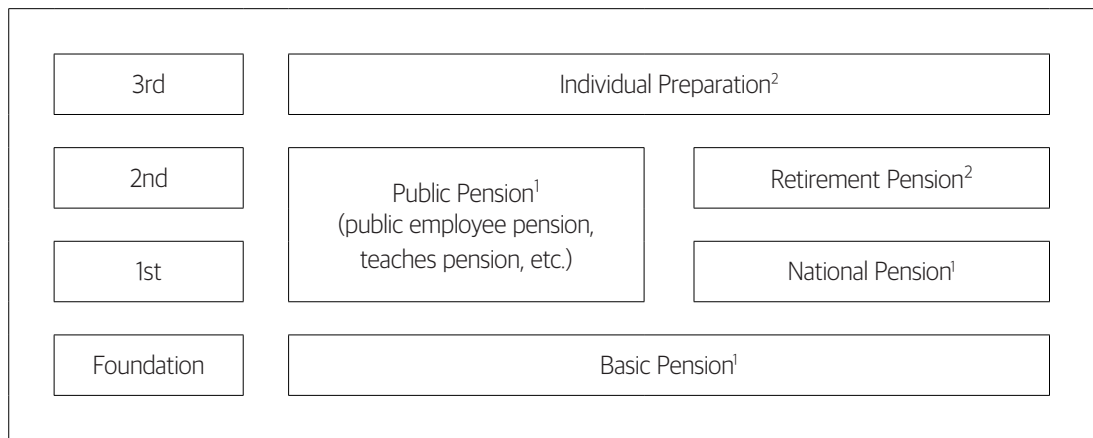
한편, 국민연금공단(2020)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4.5만원, 부부 기준 26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적정노후 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월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연령별로 개인과 부부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50대는 182.3만원과 296.1만원, 60대는 167.3만원과 275.4만원, 그리고 70대는 146.8만원과 235.5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정 노후생활비가 낮아지는 패턴이 확인된다(국민연금공단, 2020). 또한 김연화·황종규(2017)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은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5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5.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이외에 필요한 노후자금의 금액은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49.3%)고 보고하였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51.5만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범식, 2018). 안서연 외(2020)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학력자일수록 예상하는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예상하는 월평균 생활비가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은퇴 예상 연령은 68.2세이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은 62.9세로 약 5년 간의 시차가 존재한다(통계청, 2021). 즉, 자신이 은퇴하고 싶은 또는 은퇴를 계획하는 시점보다 더 일찍 은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시점이 아닌 더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퇴 후 삶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준비 상황을 보면, 5점 척도에서 긍정 응답(아주 잘 되어 있음 & 잘 되어 있음)의 비율은 9%에 불과하고 부정 응답의 비율은 54%로 절반을 넘어선 수치였다. 부족한 은퇴 준비는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은퇴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충당 정도에 대한 응답은 여유 있다(충분히 여유 있음 & 여유 있음)는 응답 비율은 12%였고, 부족하다(매우 부족함

& 부족함)는 응답 비율은 55%를 차지하였다.

##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은퇴 후의 적절한 재정적 보장을 위한 준비는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적을 것이고,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199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Averting the Old Age Crisis는 3층(pillar) 구조의 연금제도 설계를 권고한 바 있는데(한겨레·김교성, 2019), 이 같은 구조는 다층보장체계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혼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여러 나라들이 3층 구조를 채택하여 다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이를 확대하여 2014년 기초연금도 제도화되었다(한겨레·김교성, 2019). 이를 통해 <Figure 1>과 같은 현재의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0층은 기초연금(Basic Pension), 1층은 국민연금제도 등의 공적연금(Public Pension), 2층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 퇴직급여(Retirement Pension), 3층은 임의가입의 개인연금(Individual Preparation) 등의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Figure 1 > The 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 in S. Korea

<sup>1</sup> = Public Supports; <sup>2</sup> = Individual Preparation

출처: 보험연구원 (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p. 17)

우해봉·한정립(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통합 소득대체율은 43~4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달리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급여, 개인연금을 모두 보유한 개인만이 다층보장체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제약에서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김교성(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의 약 27%는 공/사 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약 35%는 단층적으로, 약 38%는 중다층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한인 선교사의 재정적 노후준비 현황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만으로는 은퇴 후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불충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자 일찍부터 준비한다. 또한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하고자 노인이 되거나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은퇴 후 삶을 위한 이와 같은 접근과 준비는 적용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선교사의 은퇴준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의 비율은 80%(김충환, 2021), 58%(한인선교사지원재단, 2018)로 나타난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은퇴와 동시에 기존에 교회 및 교단으로 받던 후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도 거의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 또한 미리 들어 놓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윤은혜(2019)는 한인선교사들의 61%는 은퇴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퇴준비는 각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구조적,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더구나 선교사들의 경우,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 시작 전에는 현지에 정착하고 적응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일단 사역이 시작된 후에는 현지에서의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은퇴 후의 한국에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 준비와 관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즉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자신의 몫이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사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가 은퇴 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로써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 이들은 은퇴후 노인이 되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문화나 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노후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선교사의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인 선교사들이 은퇴에 대해 실제로 재정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은퇴 준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준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각각 분석하는 병렬형 혼합연구 방법(convergent mixed methods design)을 채택하였다(Rubin & Babbie, 2016). 연구 질문의 내용에 따라 응답을 표준화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질문들, 응답에 대해 보다 개별적이고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한 질문들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설문지를 통한 양적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 수집을 각각 진행한 후 분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할 때 각 결과를 함께 융합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은 양적 접근 또는 질적 접근만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편파성은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II. 양적 연구

### 1.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21년 7월에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인선교사 대회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는 선교사 대회 개최 전 참여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된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국내외 한인 선교사 308명, 그리고 포항에서 개최된 선교사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들 중 112명이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참여하였다.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선교사 대회를 위한 참여 선교사 등록이 가구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420명이었고, 참여자 중 이미 은퇴가 임박한 70대 12명을 제외한 408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 (2) 측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측정을 위해 구글폼으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과 인쇄된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포함된 주요 문항은 참여자의 은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파송방법, 소속교단/선교 단체, 부부 선교사 유무, 주요 재정지원 대상, 선교지 사역 및 생활 재정 부족 등), 재정적 노후 준비 현황(재정적 노후 준비 여부 및 하지 않는 이유, 노후 시기 필요한 예상 생활비와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 소득 활동 필요성 및 은퇴 후 희망 활동 등)에 관한 것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고, 연령대에 따른 재정적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참여자 수는 408명이었고 대부분의 참여자가 해당 설문 문항에서 100% 응답하였지만, 소수의 참여자에게서는 문항별 무응답이 발생하였다. 문항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참여자를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고, 해당 문항 분석에서만 제외하였다. 항목 무응답의 경우 정보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무응답의 값을 특정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나 문항에 따른 무응답의 수가 많지 않아 정보 손실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목별 완전제거법을 사용하였다(이화정·강석복, 2012).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선교사 파송 방법에서는 2명의 무응답이 있어 408명 기준이 아닌 406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은퇴 준비에 대한 문항에서 은퇴를 위한 재정 준비 어려움 항목에서는 6명이 무응답이어서 402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분석 결과

이번 연구 참여자(408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240명, 59%)가 여자(168명, 41%)보다 조금 더 많았고, 부부 유무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359명, 88%)이 부부였다. 연령대로 보았을 때, 50대(179명, 44%)가 가장 많았고, 60대(139명, 34%)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선교 파송과 재정 영역(Dispatch of Missionari)에 대해서는 교단 선교부 또는 교단 지역 조직의 파송(220명, 54%)이 가장 많았고, 주요 재정지원(Main Financial Support Source)은 개별 교회(261명, 64%)가 가장 많았다. 선교지에서 사역 및 생활 재정 부족 경험(Experience of Financial Shortage)에 대해서는 재정 부족을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181명, 44%)이 가장 많았다. 재정 부족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열 명 중 일곱 명이었지만, 열 명 중 두세 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퇴 후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Expected Difficulties after Retirement)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16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 문제(104명, 26%), 건강 문제(56명, 14%) 순이었다. 재정 문제와 주거 문제를 분리하기는 하였지만, 주거 문제 또한 재정적인 부분이 큰 것을 고려한다면 열 명 중 예닐곱 명이 재정 문제라고 응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N = 408)

Variable	n	%	Variable	n	%
<b>Gender</b>			<b>Marital Status</b>		
Male	240	58.8	Married	359	88.0
Female	168	41.2	Single	49	12.0
<b>Age Group</b>			<b>Main Financial Support Source</b>		
40s or Under	90	22.1	Individual Church	261	64.0
50s	179	43.9	Family, Relative, or Friend	57	14.0
60s	139	4.1	Denomination	39	9.6
<b>Dispatch of Missionary*</b>			Self-Support	28	6.9
Central or Regional Branch of Denomination	220	54.2	Missionary Organization	23	5.6
Missionary Organization	127	31.3	<b>Experience of Financial Shortage</b>		
Individual Church	32	7.9	Never	125	30.6
Mixed	14	3.4	Sometimes	181	44.4
Self-Support	9	2.2	Often	69	16.9
Others	4	1.0	Very Often	33	8.1
<b>Missionary's Affiliated Organization (Denomination/Missionary Org): Top 10</b>					
1.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80	19.6	6.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17	4.2
2.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58	14.2	7.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15	3.7
3.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onghap)	34	8.3	8.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15	3.7
4. The Korean Methodist Church	33	8.1	9. Global Bible Translators (GBT)	13	3.2
5. Baptist	24	5.9	10. The Paul Mission International	8	2.0

\* N = 406

Table 2.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asons for not being Prepared

Variable	n	%	Variable	n	%
<b>Expected Difficulties after Retirement</b>			<b>Reasons for not being Financially Prepared (for only those who answer "no" in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b>		
Finance	162	40.3	Currently no financial room to prepare for retirement	152	76.0
Housing	104	25.9	No idea how to prepare (feeling the need to prepare)	36	18.0
Health	56	13.9	No feeling the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10	5.0
Loss of Roles	55	13.7	No need to prepare for retirement (having enough money for retirement)	2	1.0
Loniless/Alienation	12	3.0	Total	200	100.0
None	6	1.5			
Others	7	1.7			
Total	402	100.0			
<b>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money for retirement)</b>					
Yes	205	50.4			
No	202	49.6			
Total	407	100.0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재정적 노후 준비(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는 연구 참여자의 절반(205명, 50%)만이 하고 있었다.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Reasons for not being Financially Prepared)에 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은퇴 준비 필요성 못느낌’ 또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은 12명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해당하였고, 대부분(152명, 76%)은 ‘재정적 여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재정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205명)에게 구체적인 준비방법에 관해 추가로 질문하였고, 그 응답을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Tabel 3 참조). 노후 보장 체계(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는 전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층 모두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19명으로 5%였다. 이는 95%의 응답자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 응답자(100명, 25%)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국민 연금과 개인 준비를 함께 하는 응답자가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3. 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 based on Current Retirement Preparation

Level of Preparation	Multi-Layer Old Age Security Systems				n	%
	Foundation: Basic Pension	1 <sup>st</sup> Layer: National Pension	2 <sup>nd</sup> Layer: Retirement Pension <sup>2</sup>	3 <sup>rd</sup> Layer: Individual Preparation <sup>3</sup>		
No Preparation	O	X	X	X	202	50.0
One Layer	O	O	X	X	52	12.9
	O	X	O	X	17	4.2
	O	X	X	O	14	3.5
Two Layers	O	O	O	X	36	8.9
	O	O	X	O	54	13.4
	O	X	O	O	10	2.5
Three Layers	O	O	O	O	19	4.7
Total					404	100.0

국민연금 가입자는 161명으로 전체에서 40%에 해당하였고, 노후 준비를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41명으로 전체에서 10%였다. 즉, 재정적 노후 준비를 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가입 하고 있었다.

Table 4. The Estimated Cost of Living required after Retirement and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 Prepared (%)

The Estimated Cost(Korean Won) of Living after Retirement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 Prepared		
Attribute	n	%	Attribute	n	%
1 million or under	35	8.6	0~20%	85	20.9
about 1.5 million	80	19.7	21~40%	109	26.8
about 2 million	137	33.7	41~60%	126	31.0
about 2.5 million	85	20.9	61~80%	60	14.7
about 3 million	59	14.5	81~100%	27	6.6
3.5 million or over	11	2.7	Total	407	100.0
Total	407	100.0			

은퇴 후 필요한 예상 생활비(The Estimated Cost(Korean Won) of Living after Retirement)는 200만 원 정도(137명, 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Table 4 참조). 다음으로 250만 원 정도(85명, 21%)와 150만 원 정도(80명, 20%) 순이었다. 예상 생활비에 대해 현재를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도를 비율로 살펴보면, 절반 수준(41-60%)이라는 응답이 126명(31%)으로 가장 많았다. 40% 이하라는 응답이 47%였고, 61% 이상이라는 응답은 20%였다. 필요한 생활비를 100% 준비 또는 100% 준비에 근접한 경우는 7%(27명)에 불과하였다.

Table 5. Necessity of Incom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Desired Activities

Necessity of Incom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Desired Activities		
Attribute	n	%	Attribute	n	%
No need at all	6	1.5	Missionary Mentoring/Counseling	100	30.5
Need a Little	38	9.4	Missionary Training & Strategy Development	50	15.2
Need Somewhat	250	61.7	Missionary Mobilization	49	14.9
Need a Lot	111	27.4	Regional Expert	40	12.2
Total	405	100.0	Individual Church Ministry	36	11.0
			Total	328	100.0

은퇴 후 소득 활동 필요성(Necessity of Income Activities after Retirement)에 관해서는 대부분(361명, 8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참조). 은퇴 후 희망 활동(Desired Activities)(우선 순위로 두 가지 선택)을 1순위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교사 상담 및 멘토링이 100명(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교 훈련 및 전략 수립(50명, 15%), 선교 동원가(49명, 15%) 순이었다. 즉, 선교사 은퇴 후에도 선교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기회를 희망하고 있었다.

재정적 노후 준비 여부(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를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한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결혼 여부(Marital Status)와 성별(Gender)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Age group)에 따른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카이제곱 = 12.639; 유의확률 = 0.002). 특히, 40대 이하(43%)와 50대(44%)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60대(63%)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정적 노후 준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열 명 중 약 네 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한국인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은퇴(70세 기준) 후 15년, 백세 시대를 고려한다면 은퇴(70세 기준) 후 30년의 시기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부족한 응답자가 열 명 중 네 명이라는 것이다.

Table 6.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roup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Chi-Square (p-value)
	Yes	No	Total	
<b>Age Group</b>				
40s or under	39 (43.3)	51 (56.7)	90 (100.0)	12.639 (0.002)
50s	79 (44.4)	99 (55.6)	178 (100.0)	
60s	87 (62.6)	52 (37.4)	139 (100.0)	
Total	205 (50.4)	202 (49.6)	407 (100.0)	
<b>Marital Status</b>				
Married	176 (49.2)	182 (50.8)	358 (100.0)	1.732 (0.188)
Single	29 (59.2)	20 (40.8)	49 (100.0)	
Total	205 (50.4)	202 (49.6)	407 (100.0)	
<b>Gender</b>				
Male	117 (49.0)	122 (51.0)	239 (100.0)	0.463 (0.496)
Female	88 (52.4)	80 (47.6)	168 (100.0)	
Total	205 (50.4)	202 (49.6)	407 (100.0)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을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7 참조). 결혼 여부와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카이제곱 = 22.834; 유의확률 = 0.000).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이 61%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대 이하(13%)와 50대(16%)는 큰 차이가 없었다. 60대는 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60대 중에서 31%(43명)는 필요 금액의 절반 정도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35%(49명)는 필요 금액의 40% 이하로 준비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Living Expenses Prepar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roup	The Proportion (%)				Chi-Square (p-value)
	0-40%	41-60%	61-100%	Total	
<b>Age Group</b>					
40s or Under	52 (57.8)	26 (28.9)	12 (13.3)	90 (100.0)	22.834 (0.000)
50s	93 (52.2)	57 (32.0)	28 (15.7)	178 (100.0)	
60s	49 (35.3)	43 (30.9)	47 (33.8)	139 (100.0)	
Total	194 (47.7)	126 (31.0)	87 (21.4)	407 (100.0)	
<b>Marital Status</b>					
Married	170 (47.5)	110 (30.7)	78 (21.8)	358 (100.0)	0.308 (0.857)
Single	24 (49.0)	16 (32.7)	9 (18.4)	49 (100.0)	
Total	194 (47.7)	126 (31.0)	87 (21.4)	407 (100.0)	
<b>Gender</b>					
Male	105 (43.9)	79 (33.1)	55 (23.0)	239 (100.0)	3.240 (0.198)
Female	89 (53.0)	47 (28.0)	32 (19.0)	168 (100.0)	
Total	194 (47.7)	126 (31.0)	87 (21.4)	407 (100.0)	

Table 8. The Old Age Security System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roup	Security Systems Prepared (based on Three-Layer Systems)				Total	Chi-Square (p-value)
	Not Prepared At All	Partially Prepared		Fully Prepared		
		No National Pension	Yes National Pension			
<b>Age Group</b>						
40s or Under	51 (56.7)	6 (6.7)	30 (33.3)	3 (3.3)	90 (100.0)	14.948 (0.021)
50s	101 (57.1)	13 (7.3)	56 (31.6)	7 (4.0)	177 (100.0)	
60s	52 (37.4)	22 (15.8)	56 (40.3)	9 (6.5)	139 (100.0)	
Total	204 (50.2)	41 (10.1)	142 (35.0)	19 (4.7)	406 (100.0)	

Marital Status						
Married	184 (51.5)	34 (9.5)	123 (34.5)	16 (4.5)	357 (100.0)	
Single	20 (40.8)	7 (14.3)	19 (38.8)	3 (6.1)	49 (100.0)	2.432 (0.488)
Total	204 (50.2)	41 (10.1)	142 (35.0)	19 (4.7)	407 (100.0)	
Gender						
Male	124 (52.1)	20 (8.4)	83 (34.9)	11 (4.6)	238 (100.0)	
Female	80 (47.6)	21 (12.5)	59 (35.1)	8 (4.8)	168 (100.0)	2.036 (0.565)
Total	204 (50.2)	41 (10.1)	142 (35.0)	19 (4.7)	406 (100.0)	

다층 노후 보장 체계(The Old Age Security Systems)를 인구학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Table 8 참조). 다른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결혼 여부와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카이제곱 = 14.948; 유의확률 = 0.02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40대 이하(57%)와 50대(57%)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0대는 3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중에서 3층을 모두 다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9명)로 아주 적은 인원이었고, 부분적(1층 또는 2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56%, 78명)를 차지하였다.

### 3. 결과 요약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인 선교사 408명의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은퇴 후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문제였다.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절반 정도의 선교사만이 재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재 재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재정 부족이었다. 즉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재정 준비 측면에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선교사들의 준비 비율(50%)은 기존의 일반 시민의 준비 비율(2013년 73%)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준비가 80%라는 2011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준비 비율(2018년 42%; 2021년 20%)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선교사의 은퇴 준비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은퇴 준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었고,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정 부족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재 노후를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선교사의 준비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층 노후 보장체계가 필요한 현실에서 세 가지 준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준비)를 모두 하고 있는 선교사는 19명(5%)로 매우 적은 수였다. 또한 자신이 예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80% 이상 마련할 수 있다는 응답 또한 27명(7%)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은퇴 후 소득 활동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없으니 결국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재정 준비 정도에 관해서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또는 이미 은퇴를 한 사람에게서도 소수의 인원만이 재정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부분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재정적 은퇴 준비 여부는 결혼 여부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60대의 선교사가 재정적 은퇴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퇴가 10년도 남지 않은 60대 선교사 중에서도 37%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마련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비율에 대해 6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준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0% 초과 비율이 34%에 불과하였다. 은퇴가 가까운 60대의 은퇴 준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비 여부와 준비 수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질적 연구

#### 1. 연구 방법

##### (1) 측정 및 자료 수집 방법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의 하나인 면담을 사용하였으며, 면담 이전 여러 학술 문헌과 인터넷 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해 질문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사회과학분야(사회복지, 상담심리) 교수 2명과 연구참여자 4명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반구조화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에선 주로 1) 자기소개 2) 대략적인 은퇴 시점 3) 전반적인 은퇴준비 현황 4) 선교사들의 은퇴준비를 위해 국가/교단/교회/개인 차원 필요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면담 도중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방 질문을 이어나갔다.

연구자료수집은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전화를 통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연구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한 후 기록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녹음과 현장 기록을 동시에 하며 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듣기를 통해 그대로 전사하여 전사 자료의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코딩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쳐 중심 주제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김영천, 2006).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 교수와 연구참여자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한국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연령대를 고려하여 편의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6번의 면담을 실시했고, 연구참여자는 8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2명, 50대 3명, 60대가 3명으로, 이 중 독신 선교사가 1명이다. 여섯 번의 인터뷰 중 두 번의 인터뷰는 부부를 제외하여 실시하였다.

Table 9. Interviewee's Personal Characteristics

Interview	Gender	Age	Marital Status
Interview 1	Male	50s	Married
Interview 2	Female	60s	Single
Interview 3	Male & Female	50s	Married
Interview 4	Male	60s	Married
Interview 5	Male	60s	Married
Interview 6	Male & Female	40s	Married

## 2. 분석 결과

### (1) 귀국 후 한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지내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역을 종결(은퇴)하게 되면, 선교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었던 지원 또한 중단될 수 있다. 먼저,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사역비와 생활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또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받았던 의료 혜택이나 각종 할인 혜택을 받

지 못할 수 있다.

일부러 완전히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멈추지 않는 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선교사들은 (한국에) 계속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외선교부로 질문이 와요. 이 사람(선교사)을 계속 후원해야 하는가? 계속 한국에 있는데 선교사냐 이거죠. (인터뷰 2)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선교사 할인을 받을 때는 보통 파송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 3)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병원도 본부지원도. 본부 지원은 all stop (모두 중지) 됩니다. (인터뷰 5)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 신분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선교사가 무직자로 해외 장기거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번에 와서 놀란 것이 제가 신용등급이 제일 아래쪽이었어요. 한국에서 했던 것이 없으니까, 아무 기록도 없고 ...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야 하는 지역이어서 완전히 무직자에 실업자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인터뷰 1).

또한 대부분의 선교사는 국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겠지만, 노령으로 인한 은퇴 준비를 위한 국민 연금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선교사는 또한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비자발적 실업을 대비한 고용 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파송교회에서 파송할 때 조건이 4대 보험 안되고,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는 조건이었어요. (인터뷰 1)

4대 보험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면 연금이나 보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 2)

우리가 알아서 이제 국민연금을 넣는 다던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인터뷰 3)

그런 영역(연금 준비)은 말하기도 힘들지만,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서요. 그것이 (교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 6)

은퇴 후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선교사들은 종종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부터 현재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한 친구는 북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인터뷰2)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 못 받아 봤어요. 지난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는 거 그것만 한 번 받아봤고. 잘 모르겠네?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인터뷰1).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해 달라진 한국의 생활양식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흔히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과거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고, 연령대가 높은 선교사의 경우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선교지에서만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화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한 선교사는 “한국은 말이 통하는 낯선 나라”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마치 새로운 나라처럼 적응하기 힘든 선교사들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한국의 공공(또는 정부)시스템은 선교사의 삶의 특성을 세세하게 반영한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선교사의 생활은 한국에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이 없으면/적으면 한국에서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라는 언급에) 잘 모르겠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한국(정부)은 몰라. 이제 면사무소(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알아봐도 그런 케이스(선교사 상황)들이 그곳에는 없었거든 (인터뷰 1)

동사무소나 국세청 여기서 편지가 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이름도 바뀌었지요. 그런 것도 혼란스럽고요. 다 한국말인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겪은 어려움들이예요. (인터뷰 2)

옛날에 사람들이 다 해 주던 것을 이제는 하나도 안 해 주고, 기계에다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니깐. 노인들은 따라하기 정말 힘들죠. (인터뷰 2)

선교지에 있을 때 운전면허 재발급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한국에서도 한두 시간 걸리겠다 해서 기다리는데, 금방 제가 창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니깐.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 것도 충격이었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인터뷰 2)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은 말이 통하는 낯선 나라입니다.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4)

## (2) 은퇴 준비 인식

은퇴 준비에 대한 선교사의 인식은 사람마다 달랐다. 젊은 선교사들은 은퇴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였지만, 곧 은퇴를 앞둔 선교사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은퇴 준비에 대해 '해라',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보여주었다.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은퇴 준비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은퇴 준비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선교사가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교회와 선교사 모두에게 있었다.

저는 지금은 50세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께 '은퇴 준비해라. 얼마가 되었든 저금해라. 교회가 절대 안 도와준다. (중략) 해외에서 일하던 선교사를 도와 줄 교회가 없다' (인터뷰 2)

선교사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기획을 해야 한다. (인터뷰 4)

선교사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있는 동안 집을 장만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은퇴 후가 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중략) 집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더 나오고, 계속 또 빚으로 사야 되니까. 그게 그거다 싫어서 우리는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은퇴 후에는 그저 부딪혀요.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인터뷰 5)

은퇴 준비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은퇴 준비하면 앞으로 나가기 힘든데... (인터뷰 6)

최근에 보는 것은 어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비량 선교사. 선교사가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뷰 6)

### (3) 은퇴 준비 현황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현황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교사별로 준비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준비가 전혀 없는 선교사도 있었고, 교단의 준비(퇴직 적립금, 은퇴 연금, 또는 국민 연금 가입)로 인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선교사도 있었다. 특히, 교단 본부 소속 선교사에게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모든 선교사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교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만으로는 한국에서 은퇴 후 평균 적정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교단 자체에서 국민 연금 가입을 시작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선교사는 매월 연금액을 내지 못해 해약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연금이나 이런 건 넣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인터뷰 1)

(은퇴 준비에 대해) 아...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좀 해야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준비하는 것이 거의 없죠. ... 총회선교부에 은급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은급을 들어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총회선교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상황이고요. (총회선교사 소속이 아닌 현재의) 저희는 상관없고. (인터뷰 3)

그런데 저희는 개교회 파송이기도 하고 아직 저희는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고요. (인터뷰 6)

(교단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직 적립금이라고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 최고참 선교

사가 은퇴할 때 한 5천여만 원 될 겁니다. (인터뷰 4)

교단에서 은급금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나오는데. 벌써 23년째 들고 있어요. ... 지금은 나이가 늘어나고 수령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마 수령 액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인터뷰 5)

여기 \*\*교단은 초창기 회장님이 국민 연금을 들어놓아서. 제가 61살이 되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인터뷰 2)

(연금) 이게 또 어려운 친구들은 해약해버렸어요. 해약하고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죠. (선교사가) 해약한다고 하면 (본부에서) 해약 못 하게 막아놓았어야 한다고. 연금을 받는 것은 머나먼 얘기였는데, 지금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터뷰 2)

#### (4) 해결 방안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관한 해결책은 일차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연금 가입을 포함한 교단 또는 선교 단체에서의 은퇴 준비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선교사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곧 은퇴를 앞둔 선교사에 대한 방안으로,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 공동주택을 지어 게스트 유닛을 만들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시니어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디 너무 시골도 아닌 곳에다가 공동 주택 만들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지만, 누가 나서야죠. 컨테이너라도 게스트 유닛을 만들어서 지내게 하고... (인터뷰 2)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더라고요. 같이 농사나 어떤 자립하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 각자 배워서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뷰 6)

초교과적인 연금 조합 구성 또한 언급되었다. 이는 각 교단이나 교회, 단체를 넘어 선교사 은퇴 준비를 돕는 초교과적인 기구를 만들어 개별 교단 수준에서 준비가 어렵다면 교단 연합으로 준비하

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선교사 연금조합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금 단체별로는 그것을 하긴 힘들고, 한국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은퇴 준비가 되지 않는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인터뷰 3)

은퇴 후 선교지에서 사역을 지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역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선교사가 사역했던 지역의 언어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해에 우즈벡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즈벡 커뮤니티 사역하는 분도 있고요. 사하라에서 온 분은 강남에 러시아말 쓰는 분이 많아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 국내지부라고 해요.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하는 것인데, 자기가 섬기던 민족 그렇게 하고(한국에서 섬기고 있다). (인터뷰 2)

선교사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기획을 해야 한다. 그 기획이 은퇴하고 난 뒤에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은퇴하고 난 뒤에 현장을 지켜라. (중략) 지금은 은퇴 이후에 한 15년 동안은 여유가 있는데, 그 15년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터뷰 4)

### 3. 결과 요약

이번 연구를 위한 여섯 번의 인터뷰에 참여한 8명의 선교사의 답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선교사에게 은퇴를 포함하여 선교지를 떠난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수입(선교 후원금)의 중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선교사 은퇴를 하면 현직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용 혜택 또한 중단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고용보험이 보호하는 비자발적 실업(추방 또는 선교지의 비우호적인 상황)에 따른 수입 중단 또는 감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없어 선교 활동 중 부상 또는 건강의 손상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국민 연금을 통해 준비하는 은퇴 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 이러한 위협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 보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선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단과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장기간 해외 선교사로 사역 후 은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은퇴 준비는 필수적이어서 적은 금액이어도 해야만 한다는 의견과 아직 은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 은퇴 준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은퇴 준비에 대한 현황 또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은퇴를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부족한 은퇴 준비에 대한 해결책 또는 은퇴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는 의견은 세 가지였다: (1)은퇴 선교사들이 모여 자립하는 공동체를 구성, (2)초교과적 연금 조합을 구성, (3)사역의 연장(은퇴 후지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지속하는 것과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에 참여).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 또한 선교사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불가능하고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IV. 결론 및 논의

상당수 선교사들은 은퇴 준비 없이 은퇴를 하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과 함께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은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은퇴가 얼마남지 않은 60대 선교사들의 경우 노후 준비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후를 위한 다층적인 준비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의 은퇴 후 생활의 어려움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선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408명의 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8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해 6번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양적 연구와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선교사 은퇴 준비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인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선교사 은퇴 준비 현황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선교사 구

모에 비해 적은 수가 참여한 것으로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조사 참여자를 구성하여 그 필요와 규모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문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선교사 개인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별, 가구별, 교단별로도 자료를 수집하여 은퇴 후 생활을 위한 필요 항목과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개입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이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선교사들이 은퇴 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개인적인 여력의 부족이었다. 즉 현재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20년-30년 후의 은퇴 생활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장의 사역을 위한 재정조차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나아가 현재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선교사도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은퇴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이해함을 통해 지금 준비를 시작,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소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노후를 위한 다층 구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단/교회 또는 선교 단체 또한 기관 차원에서 선교사 노후 준비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외국 선교회의 경우 많은 경우 장기 선교사들을 선교회 자체 연금 재단이나 프로그램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할 뿐 아니라 선교사가 자신의 후원금에서 일정 비율을(예를 들어 매달 5~10%), 그리고 선교회에서 일정 비율의 은급비를 납입하여 노후 연금을 마련하거나(조장연, 2005), 은퇴기금을 건정한 기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선교사들의 노후를 돕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신기황, 2016). 무엇보다 이것을 각 교단/교회 또는 각 선교 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 선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층 노후 보장의 1층(국민연금)과 2층(퇴직연금) 마련을 위한 공동의 자원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선교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 부족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공동의 준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을 시작(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 연금 가입(또는 유지)을 위해 절반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교단 또는 단체 차원의 퇴직 연금 또한 적극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등 이미 노후 준비가 늦은 경우를 위해서는 은퇴 후 선교사가 생활할 수 있는 선교사 공동체(또는 공동생활이 가능한)를 준비, 시작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직면해야 하는 경제적 현실은 빈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파송 교회가 선교사의 은퇴 후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선교사 파송 기간 동안에도 사회 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은퇴 후 지원은 더욱 힘들 것이다. 개별 교단에서 단기간에 적정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초교단/초교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사역한 선교사의 은퇴 후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한 초교파적인 논의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은퇴 후 삶에 대한 대책은 연령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은퇴를 하게 될 선교사에게 국민연금 가입은 실제적인 가능성이 없고, 연금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65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늦어도 40대 중반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30대와 40대를 위한 은퇴 준비와 60대를 위한 은퇴 준비는 달라야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은퇴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은퇴 준비가 부족한 선교사는 결국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은퇴 후 선교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일과 돈에 대한 기독교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은 선교사의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의 유무형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한국 교회에 또한 필요하다. 은퇴 후 선교사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유의미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선교사 개인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함께 상호 이익(win-win)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역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훈련을 받아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은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지 상황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선교사가 은퇴 후 한국에서 이러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선교사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은퇴가 당연한 문제가 아닌 선교사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노후준비는 개별 선교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단절을 개인적 위험(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위험(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별 선교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교회/교단/선교 단체의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인식 또한 변해야 한다. 인식 변화 캠페인과 함께 선교사에게는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별히, 개별 선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선교사에게 선교 준비를 하는 기간에 교단 또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을 활용하여 선교지에서 재정 관리와 함께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

조하고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는 혼합 방식의 연구 접근을 통해 선교사의 은퇴 준비에 대한 현황과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정 준비 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선교사의 총 인원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적지는 않았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전체 선교사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은퇴 준비는 개인적 영역과 함께 가구 단위의 고려가 함께 되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만을 분석 단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이번 연구에서 부부가 따로 참여함으로 한 가구의 특성에서 동일한 영향을 받는 부분을 간과하여 과대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에 따른 노후 준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같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은퇴 준비로는 선교사들이 향후 경험하게 될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선교사 개인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곽민주·이희숙 (2015). 재무적 요인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1-30.
- [Kwak, M. J. and Lee, H. S. (2015).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retiree's life satisfaction.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1-30.]
- 김연화·황종규 (2017). 세대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5(2), 189-204.
- [Kim, Y. H. and Hwang J. G. (2017).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Aging for Each generation. *Korea Real Estate Society*, 35(2), 189-204.]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Kim, Y. C. (200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MunEumSa.]
- 김은미 (2004). 선교사의 스트레스와 해결방안. *신학정론*, 22(2), 619-640.
- [Kim, E. M. (2004). Stress of Missionaries and Solution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2(2), 619-640.]
- 김충환 (2020). 선교사의 은퇴준비에 대한 고찰: HIS 소속 선교사를 중심으로. *신학정론*, 39(1), 407-444.
- [Kim, C. H. (2020). A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missionaries: focusing on missionaries of HI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39(1), 407-444.]
- 보험연구원 (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from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19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6). *Aging and retirement preparation 2016*. from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190>]
- 성지미·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Sung, J. M. and An, J. Y. (2011). A study of retirees' satisfaction on retirement. *Association of Korean Economic Studies*, 29(2), 175-212.]
- 손판도·김진곤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다층보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631-670.
- [Son, P. D. and Kim, J. G. (2016). Determinant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cusing on the baby boomer.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Academic Contest*, 631-670.]
- 송기영 (2018).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 연구**, 73(1), 269-503.
- [Song, G. Y. (2018).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1), 269-503.]

신기황(2016). “방콕포럼 2014-8: 사역자와 은퇴: 미 남침례회 은퇴 프로그램의 소개 및 제안”, 미션 파트너스 (2016.12.8.). Retrived from <https://bit.ly/3MjIQsj>

[Sin G. H. (2016). “Bangkok forum 2014-8: Ministry and retirement: introduction and proposal of the retirement program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ission Partners (2016.12.8.). Retrived from <https://bit.ly/3MjIQsj>]

신계수·조성숙 (2011). 베이비붐세대의 직업만족도와 경제적 은퇴준비 실태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 학회논문지**, 5(4), 41-50.

[Sin, G. S. and Cho, S. S. (2011). Analysis on Baby-boomers' Job Satisfaction and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5(4), 41-50.]

안서연·임란·왕승현·이은영 (2020).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 8차(2019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An, S. Y., Lym, L., Wang, S. H. & Lee, E. Y. (2020). *Economic life and retirement preparation of middle and old people: 8<sup>th</sup>(2019) basic analysis report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National Pension Service.]

여윤경·정순희·문숙재 (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Yeo. Y. G., Jeong, S. H. and Mun, S. J. (2007).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10(3), 129-155.]

우해봉·한정림 (2015).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299-329.

[Woo, H. B. and Han, J. L. (2015).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Providing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5(1), 299-329.]

윤은혜 (2019). **선교사 은퇴 이후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Yun, E. H. (2018). *A study on welfare measures after the retirement of missionarie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이계승·김동하 (2017).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종단적 변화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4), 157-185.

[Lee, G. S. and Kim, D. H. (2017). A Study on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Longitudinal Changes in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 aging Amo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 48(4), 157-185.]
- 이여봉 (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4(1), 32-71.
- [Lee, Y. B. (2012). Middle-aged Women's Preparation for the Old Age. *Family and culture*, 24(1), 32-71.]
- 이재풍·이지모 (2020).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전국상담복지학회**, 4, 169-201.
- [Lee, J. P. and Lee, J. M. (2020). The effect of Semi-Elderly Preparation for Retirement on Successful Aging. *National Counseling Welfare Academy*, 4, 169-201.]
- 이화정·강석복 (2012). 설문조사에서의 무응답 처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6), 1183-1194.
- [Lee, H. J. and Kang, S. B. (2012). Handling the nonresponse in sampl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6), 1183-1194.]
- 이혜리 (2022). “한국 노인 빈곤율 처음 30%대로 하락 그래도 OECD 최고 수준”, 경향신문 (2022.3.8).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080801001>
- [Lee, H. L. (2022). “Korea's poverty rate for senior citizens falls to 30% for the first time, but it is still the highest in the OECD”, The Kyunghyang Shinmun (2022.3.8).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3080801001>]
- 장은하 (2014).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복지관 이용 노인과 비이용 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Jang, E. H.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Preparing Senior Life to the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comparing seniors using social welfare center with seniors do not*. Masters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정지영·양세정 (201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113-127.
- [Jeong, J. Y. and Yang, S. J. (2013). Comparing Objective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1), 113-127.]
- 조장연 (2005). 현대 한국선교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들. **한국선교신학회**, 10, 111-138.
- [Joo, J. Y. (2005).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Korean missions movement: a historical analysis. *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10, 111-138.]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조혜진 (2012).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13(3), 63-87.
- [Choi, H. J., Choo, S. H., Kim, M. J. & Cho, H. J. (2012). The Development of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of Korea. Survey research*, 13(3), 63-87.]

-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Retri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
- [Statistics Korea. (2021).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Results for 2021”, Retri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
- 한겨레·김교성 (2020).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과 성별 차이. **한국사회보장학회**, 35(1), 151-179.
- [Han, G. L. and Kim, G. S. (2020). Type of individual establishment in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gender differenc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5(1), 151-179.]
- 한국선교연구원 (2020). “2020 한국선교현황”, Retrived from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2020). “2020 Korean missionary status”, Retrived from <https://krim.org/2020-korean-mission-statistics/>]
-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 (2018). **선교사은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Korean World Missionary Care Foundation (2018).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retirement of missionaries.*]
- 황길주·정명희 (2021).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 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한국문화산업학회**, 21(3), 171-179.
- [Hwang, G. J. and Jeong, M. H. (2021). The Effects of the Elderly Age Preparation in Successful Ag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Korea Society of Culture Industry*, 21(3), 171-179.]
- 황윤일 (2011). 선교사 은퇴 후 복지 문제, **선교와 신학**, 28, 189-220.
- [Hwang, Y. I. (2011). A Study of Post-Retirement Plans for P.C.K. Missionaries. *Theology of Mission*, 28, 189-220]
- Denzin, N. K. (2017).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Transaction publishers.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 Rubin, A. & Babbie, E. (2016). *Essential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engage Learning: Boston.



# 한인 선교사 은퇴준비 연구: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Missionaries focusing on Financial Readiness

강병덕 (한동대학교/교신저자)

조성봉 (한동대학교)

정예은 (한동대학교)

손해인 (한동대학교)

### 논문초록

국외에서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들 다수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소속 교단, 선교단체가 은퇴 준비를 돕거나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선교사역 은퇴 후 생활은 각 개인이 알아서 감당, 감내해야 할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많은 선교사들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든 상황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및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선교사들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양적, 질적 연구자료를 각각 수집하였다. 양적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결혼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 국적 선교사들의 재정적 노후준비 여부 및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수집된 질적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귀국 후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실질적 어려움,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 및 현황, 그리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이 은퇴 후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교사들 및 한국교회가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인선교사, 은퇴 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은퇴 후 생활, 노인빈곤